‘마음·견성’ 본질 살필 법석 열렸다

대행선연구원 설립 10주년 학술대회

6월 20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초기불교 · 대행선 등 관점서
마음 · 견성으로 ‘선불교’ 조망

최원섭, 대행 선사 견성성불관
1990년대 돈점 논쟁 통해 조명
“대행 선사, 지눌 돈오점수 수용”
‘오후보림’ 현대 의미 조명도 눈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6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0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요 내빈과 발제자, 논평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선불교의 핵심인 ‘마음’과 ‘견성(見性)’을 통해 선불교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는 법석이 열렸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6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0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행선연구원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을 중심으로 초기불교와 중국 선종, 한국 선불교, 대행 선사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며 이를 통해 선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한마음과 견성’을 통해 대행 선사의 견성성불관을 1990년대 한국불교계를 달군 돈점 논쟁의 맥락에서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퇴옹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를 통해 “선문에서의 견성은 곧 구경묘각이며, 견성 이후 다시 닦아 성불한다는 돈오점수론은 선종 정통의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보조 지눌의 돈오점수론을 둘러싼 논쟁이 한국불교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최 연구원은 대행 선사 역시 보조 지눌의 돈오점수론을 법문에서 인용했으며, “선사의 견성성불관이 돈오점수의 구조 속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봤다. 다만 대행 선사는 돈오점수와 돈오돈수 가운데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르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오히려 돈오와 점수가 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행 선사는 ‘돈오’를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점수’를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는 것에 비유했다. “돈오는 탄생하는 것이요, 길러내는 것은 점수”라는 설명이다. 이는 보조 지눌이 〈수심결〉에서 돈오를 자기 본성을 문득 보는 일로, 점수를 깨달음에 의지해 성태를 길러 성인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한 것과 상통한다.

최 연구원은 “대행 선사는 늘 생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가 이미 부처이고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가르침이라고 한다”며 “그러므로 선사에게는 깨달음 이후의 닦음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 부처임을 자각한 부처로서 그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견성과 성불의 관계에서 성철 스님은 ‘견성즉불(견성이 곧 부처)’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행 선사는 ‘견성-성불-열반’이라는 3단계로 거론한다. 세 번 죽는 것으로도 표현되는 3단계 견성성불관에 대해 최 연구원은 이 같이 설명했다. 첫 번째 죽음은 모든 것을 주인공 자리에 맡기고 놓아 참나를 보는 길이고, 두 번째 죽음은 일체 중생과 자신을 둘로 보지 않는 둘이 아닌 도리이며, 세 번째 죽음은 너와 내가 있으면서도 둘 아니게 되는 나툼의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다만 3단계는 고정된 수행 단계가 아니다. 대행 선사는 단계를 말하면서도 “깨달음에 있어서도 차원 없는 차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연구원은 “불은 생명이요 교는 생활임을 강조하는 대행 선사의 입장에서는 부처로 사는 것이 핵심이므로 견성과 성불 등으로 표현되는 수행 단계는 사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견성성불론은 보조 지눌의 돈오점수의 틀을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대



묘공학술상 수상자 김두식 소장과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묘공학술장학 장학생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립했던 돈수마저 수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본래 부처의 현실 교화와 실천이 강조됨으로서 돈점논쟁에서 거론됐던 비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견성한 선지식들이 ‘오후보림’을 어떻게 보였고, 이는 현대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살핀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논문 ‘견성 이후 삶에 대한 선불교적 고찰-오후보림을 중심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조사선 전통 속에서 견성 이후의 삶을 네 흐름으로 정리했다. 먼저 혜능의 삼무(三無), 곧 무념·무상·무주를 통해 집착 없는 삶의 구조를 살폈다. 혜능 선사상의 핵심을 불성과 반야로 보고,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연결해 무주를 견성 이후 삶의 근본으로 제시했다.

마조 도일의 평상심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교수는 마조의 평상심을 단순한 수행 방법론이 아니라 선불교가 제시하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 삶의 방식으로 설명했다. “특별한 초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일상 속에서 도를 구현하는 삶이 평상심의 의미”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임제 의현의 무위진인 사상은 자유로운 주체성의 관점으로 정리됐다. 김 교수는 “무위진인을 어떠한 위치와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외부 권위나 관념에 종속되지 않는 살아 있는 주체성”으로 설명했다.

대혜 종고와 몽산 덕이의 간화선 전통에서는 오후보림이 보다 체계적으로 강조됐다. 김 교수는 “간화선 수행자들은 견성을 하나의 완결된 상태로 이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깨달음을 삶 전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여겼다”며 “오후보림은 단순한 수행의 연장이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집착마저 내려놓고 삶 속에서 자신을 비워가는 과정이며, 견성 이후의 성숙 과정이자 자기 해체의 지속적 과정”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견성한 자의 삶은 자기 완결적 삶이 아니다”면서 “그는 세계와 타자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열어 간다. 바로 이러한 열린 관계성 속에서 지혜와 자비는 하나로 통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불교에서 견성 이후의 삶은 자유와 자비, 무주와 실천, 평상심과 책임성이 통합된 삶이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삶의 구조는 오늘날 인간 존재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와 문명적 불안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필원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의 ‘번뇌가 있는 중생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의 ‘선종의 깨달음이 갖는 특수성-원환적 회귀를 중심으로’, 김호귀 동국대 교수의 ‘견성의 속성과 기능 고찰’이 발표됐다.

학술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내빈들이 10주년을 맞은 연구원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는 축사에서 “한마음선원을 창건하신 대행 선사께서는 삶의 현장에서 혹독하게 엄습하는 고뇌를 체험하며 벼랑 끝 현자에서 한순간 반짝하는 자성의 광명을 체득하고 철통같은 신심으로 발심수행했다”며 “대행 선사의 언설로 던져진 언설에만 놀아나지 말고 진심과 골수에 사무쳐 펼쳐진 신심과 수행의 간절한 의미를 실천수행해 모든 대중이 환희용약하는 안양 정토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초기불교에서 대승 경론, 조사선의 전통을 거쳐 대행선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견성’이라는 본질을 꿰뚫는 소중한 법석”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학술적 성취를 넘어 사부대중 각자가 내 마음의 주인공을 발견하고 삶의 현장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전환점이 되길 발원한다”고 전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0년, 8만7600시간이라는 여정 속에서 대행선연구원은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대행선의 사상적 지평을 넓혀왔고 학술지 〈한마음연구〉는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지로 선정돼 대행선 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결실을 이뤘다”며 “이는 연구원만의 성과가 아니라 대행 선사를 기억하고 연구하며 실천해 오신 모든 대중의 원력과 정성이 함께 이룬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8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제8회 묘공학술장학 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제8회 묘공학술상 수상자로는 최우수상은 없이 우수상에 김두식 불교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의 ‘대행 선사 관련 연구의 지식 지형과 시계열 변화-LDA 토픽모델링을 통한 학술 담론 분석’이 선정됐다. 제8회 묘공학술장학 증서 수여식에서는 박사과정 9명, 석사과정 3명 등 총 12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돼 장학증서를 받았다. 장학생들에게는 2026학년도 1·2학기 동안 장학금이 지급된다.

제 8 회

천 태

사 진

공모전

접수 8월 10일(월)~21일(금)

전시 11월 25일~30일, 한국미술관
(서울시 인사동길12 대일빌딩 한국미술관2층)

입상자발표 9월 중 개별 통보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제8회 천태사진공모전 운영위원회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후원 금강신문사,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공모 개요

주 제	소백산국립공원, 단양 지역 자연 풍경, 사찰 및 불교 정신을 담은작품, 천태종 관련 사진 우대.
자 격	제한 없음
규 격	장별 3000픽셀, 해상도 300dpi, 용량 10MB 이상 JPEG파일. 출품작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것으로 한함. 작품의 파일명은 반드시 <작가명-작품명.jpg>로 할 것. 규격 파일형식 엄수, 규격 파일형식 미달은 심사 제외.
출 품 수	1인 4점 이내. 타 공모전 출품 및 타인명 출품 심사 제외. (추후 인지 시에 수상 취소)
출품방법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가 기록된 파일을 첨부해 E메일로 접수.
출 품 료	없음.
접수기간	2026년 8월 10일(월) ~ 21일(금)
접 수 처	Email : cheontaecmb2@kakao.com Tel: 02-723-1559

시상 내역

시 상	수 상	시 상 내 역
금 상	1명	상장 및 상금 500만 원
은 상	1명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동 상	3명	상장 및 상금 각 100만 원
가 작	10명	상장 및 상금 각 30만 원
입 선	00명	상장

*입상자에게는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입회 점수가 부여됩니다.

대한불교천태종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사진예술로
승화하여 21세기 기록 문화의 향상을 기하고자
‘제8회 천태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진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DSLR, 드론(촬영허가서 첨부)으로 촬영한 작품만 심사(허가관련 위법 사항은 작가 책임).
- 입상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사용권은 천태종에 있음.
- 작품의 초상권과 관련한 사항은 작가의 책임. (스님 초상 중심되는 사진 금지)
- 출품 후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 및 수신이 불가할 경우 주최 측에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불가.
- 디지털 합성 또는 과도한 포토샵으로 작업한 사진, A.I 작품은 심사 제외. 창작적 의도로 보정을 한 경우 원본도 첨부(심사 참조용).
- 수상작과 동일작을 타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수상할 경우 수상 취소. 상금반납은 물론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 입회가 유보됨.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의 결정에 의함.